

맞춤형 여행 기획자 '여행코디네이터'

하나투어 여행코디네이터 박재신

여러분에게 여행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행복이자 설렘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꿈꿔온 꿈이지요. 여행의 의미는 제각각일지라도 여행의 기억이 소중한다는 것에는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여행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코디네이터입니다.

여행코디네이터란 직업을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혹시 여행사에서 기획한 여행코스를 따라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가족을 위한 주말여행코스 등 여행객의 상황을 고려한 여행 상품부터 마니아 여행객을 위한 역사유적지탐방 또는 효도관광 같은 테마여행까지... 여행코디네이터는 여행객의 취향에 맞는 여행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개발한 여행상품을 여행객의 성향에 맞춰 추천하는 일을 합니다.

여행객이 원하는 상황에 맞춰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는 맞춤형 여행 기획자, 여행코디네이터. 여행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 여행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여행상품 기획부터 여행지의 '맛집' 탐색까지

여행지 선택, 항공편과 숙소 예약, 여행지에서 둘러볼 관광지과 맛집 탐색 등...

여행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여행객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

▶ 여행지에 대한 공부는 필수!

▶ 문화, 역사, 자연환경은 물론 언어까지 철저하게 공부해야

가족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나요? 여행을 떠날 날짜를 정하고, 국가와 지역을 선택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편과 숙소도 예약해야 하지요. 여행지에서 둘러볼 관광지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집'도 검색합니다.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여행코디네이터는 이 모든 일을 도맡아 여행객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행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것도 여행코디네이터의 몫입니다. 여행상품 기획의 과정은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 여행코디네이터가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

여행 트렌드 분석 → 타겟 여행객 파악 → 나라와 지역을 선정 →
관광명소, 숙소, 식당 등 섭외 →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편 예약

먼저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여행의 트렌드는 어떠한지 분석합니다. 사전조사가 완료되면 기획하는 여행상품의 타겟 여행객을 설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행을 갈 것인지 파악해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정해지면 나라와 지역을 선택하고, 방문할 명소, 숙소, 식당 등을 선택합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도 여행코디네이터의 몫입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합하면서 우리의 기억에 남을 여행을 기획하는 것이 여행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인 것이죠.

▼ **여행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한 자질은?**

여행에 대한 애정+강인한 체력+외국어 능력

기존 여행상품 검토,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 위한 현장근무 多

▶무엇보다 여행을 좋아해야

▶강인한 체력은 필수!

현지인에게서 듣는 알짜정보

▶외국어 능력도 중요!

여행코디네이터는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여행지를 직접 돌아다니는 현장근무가 잦습니다. 따라서 여행코디네이터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 여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박재신 여행코디네이터는 “여행객이 좋아할만한 여행상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여행지를 방문하는 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행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하므로 강인한 체력도 요구됩니다.

여행코디네이터가 여행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좋은 여행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지에 대한 공부는 필수지요.

여행지의 문화, 역사, 자연환경까지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지에 대한 공부는 여행지와 관련된 다채로운 책을 읽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여행지에 대한 알짜정보는 현지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속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인과 소통하는 일도 필수지요. 현지인과 무리 없이 소통하기 위해 원활한 외국어 실력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여행객에게 멋진 여행을 선사하고자 하는 ‘진심’이 뒷받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 **여행코디네이터가 되려면?**

관광 관련 학과 전공이 유리, 관련 자격증 취득도 도움

여행에 대한 관심 있어야

관광경영학, 국제관광학 등 관광 관련 학과 전공하는 것이 유리

관광통역안내사, CRS(항공예약발권)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것도 도움

여행코디네이터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무엇보다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관광경영학 △국제관광학 △호텔경영학 등 관광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광 관련 학과에 진학할 시 관광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함께, 관광 산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학교와 여행사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여행코디네이터의 업무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CRS(항공예약발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여행코디

네이터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 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이론시험입니다. 10~15분 내외의 면접으로 실시되는 2차 시험은 국가관이나 사명감 같은 정신자세, 예의나 성실성과 같은 품행, 의사전달력 등을 평가합니다.

CRS(항공예약발권)는 Computer Reserevation System의 약자로 항공편의 예약과 발권 서비스 및 각종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CRS 자격증을 갖추면 아무래도 여행객들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일, 각종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행코디네이터,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여행지 고유의 문화,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여행이란 같은 곳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그 나라의 매력이 보입니다. 여행코디네이터는 여행지의 고유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연만큼 그 나라의 매력을 볼 수 있고, 이를 반영한 멋진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박재신 여행코디네이터)

박재신 여행코디네이터는 다양한 여행지를 방문하여 각국의 문화를 겪어야 하는 여행코디네이터에게 열린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행객에게 각각의 여행지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여행코디네이터에게는 각국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을 선사하는 맞춤형 여행 기획자, 여행코디네이터. 여행코디네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여행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겸비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바랍니다.